

##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

서지영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Schwartz의 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초등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적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치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325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443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가치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고, 295명의 대학생에게는 가치조사 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를 사용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 모두에게서 독립된 2개의 양극차원에 속하는 4개의 상위 위계로 된 자기초월가치, 자기고양가치,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 보수주의가치가 나타나 Schwartz의 가치이론에서 제안한 가치구조가 한국 자료에서도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화된 가치형의 수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7개, 고등학생의 경우 8개, 대학생의 경우 9개로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라 가치형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하위 가치형들의 중요도를 보면,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쾌추구와 성취를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박애, 권력 등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학생들은 자기주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하위 가치형들 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주요어: 가치, 가치구조, 가치묘사 질문지, 가치조사 질문지, Schwartz의 가치이론

가치는 인간 행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연신, 최하나, 2009). 가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직한 목표 상태로서, 한 개

인이나 가족, 조직, 동호회와 같은 사회적인 실체의 삶을 안내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Kluckhohn, 1951; Schwartz, 1992). 이런 정의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가치의 핵심 특징들이 포함되어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있다(De Groot & Steg, 2008; Schwartz, 2002). 첫째, 가치는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신념을 반영한다. 둘째, 가치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들에 구애받지 않는다. 규범이나 태도와 같은 개념들은 주로 구체적인 행동, 대상 또는 상황에 관한 것을 언급하지만 가치가 가진 추상적인 속성은 가치를 규범이나 태도와 같은 개념들과 구분해 준다. 셋째, 가치는 행동, 사람 및 사건들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나 안내 원리로서 기능한다. 넷째, 가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선 순위가 형성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봉사하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가치의 이런 특징들은 가치 연구의 중요성을 최소한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 줄 수 있다(De Groot & Steg, 2008). 첫째, 가치가 구체적인 신념과 행동 설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타당화 되어졌기 때문에 가치는 태도와 행동의도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예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Olson, Roese, & Zanna, 1996; Stern, 2000; Stern & Dietz, 1994). 둘째, 사람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전체 가치의 수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치는 행동의 다른 선행 변인들(예컨대 구체적인 신념들, 구체적인 태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 집단, 국가 및 문화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Rokeach, 1973).

여러 가지 태도와 행동의도 및 행동의 예언과 설명에서 가치의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몇몇 연구자들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작하

고 문화 보편적인 가치차원을 밝히려고 노력해 왔다(Hofstede, 1984, Rokeach, 1973, Schwartz, 1992, 1994). 가치를 18개의 목적 가치(예컨대, 편안한 삶, 자유)와 18개의 도구 가치(예컨대, 야망이 있는, 이성적인)로 구분한 Rokeach(1973)를 시작으로 해서 Schwartz와 Bilsky(1987, 1990), Schwartz(1992, 1994)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56개의 대표적 가치들을 측정하는 가치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 SVS)를 사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의 구조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안하였다. Schwartz의 가치이론은 현재 인간의 가치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의 하나이며(Döring, Blauensteiner, Aryus, Drögekamp, & Bilsky, 2010), 심리학 내의 가치 관련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De Groot & Steg, 2008).

Schwartz(1992, 1994)의 ‘삶의 가치 이론’에 따르면, 가치의 구조는 상이한 동기로 구분되는 10개의 가치형(value type)과 이런 10개의 가치형이 속하는 상위의 독립된 두 개의 양극 가치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참조). Schwartz 가치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이론에서 나타난 10개 가치형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 구조이다. 10개의 가치형들(관련된 가치가 나타내는 동기적인 목적에 따라 이름 붙여진)은 원 모양의 구조를 나타내며 이런 구조는 가치들의 양립 가능성이나 대립 관계 또는 서로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삶 속에서 특정 가치를 추구할 때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과 행동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김연신, 최한나, 2009; Bubeck & Bilsky, 2004). 예를 들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성취를 추구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으며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중시 가치와 성취중시 가치는 모두 개인의 성공과 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며 심리적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열망은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 행동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의 양립 가능성과 갈등은 원 모양의 가치구조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두 개의 가치 형이 원 모양의 구조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할수록 두 가치들은 서로 양립 가능하며 멀리 떨어져 위치할수록 두 가치들은 서로 갈등을 야기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개의 가치 형들은 상위의 4개의 가치형들(자기초월, 자기고양, 변화에 대한 개방, 보수주의)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런 4개의 상위 가치형들은 2개의 독립된 양극 차원들에 속한다. 2개의 독립된 양극 차원들은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가치-자기고양(Self-enhancement)가치’ 차원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가치-보수주의(Conservation)가치’차원이다.

보편주의(Universalism)형 가치와 박애(Benevolence)형 가치는 자신보다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초월 가치’ 차원에 속하며, 성취중시(Achievement)형 가치와 권력중시(Power)형 가치는 이 차원의 반대편 끝인 자신의 이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고양 가치’ 차원에 속한다. 자기주도(Self-direction)형 가치와 자극추구(Stimulation)형 가치는 변화에 호의적이며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차원에 속하며, 동조중시(Conformity)형 가치, 안전중시(Security)형 가치 및 전통중시(Tradition)형 가치는 이 차원의 반대편 끝에 위치하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질서와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주의 가치’ 차원

에 속한다. 쾌추구(Hedonism)형 가치는 자기고양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 양쪽 모두의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4개의 상위 가치형들 간의 어느 한 가지 형에 명확하게 속하지는 않는다.

Schwartz의 가치이론이 가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구조가 60개 이상의 성인 표집들을 대상으로 한 범문화적인 연구들에서 확증 되어왔다 (Bubeck & Bilsky, 2004; Schwartz, 2005a, 2005b; Schwartz & Boehnke, 2004).

이런 연구들에서 Schwartz와 동료 연구자들은 가치를 측정하고 가치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가치조사 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 SVS)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SVS에서 사용되는 문항들은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응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영적인 삶(spiritual life)”과 관련된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추상적인 인지 능력이 필



그림 1. Schwartz의 가치이론에서 제시된 가치형과 가치차원

요하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및 교육 경험이 적은 성인들의 가치구조는 SVS로서는 연구되어 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가치의 일반적인 구조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은 있어 왔지만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가치구조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수행되지 못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가치구조에 대한 정보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Bubeck & Bilsky, 2004). 이렇게 대상에 따라 가치 측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Schwartz, Melech, Lehmann, Burgess, Harris 및 Owens(2001)는 SVS와 동일한 내용 영역을 포함하지만, SVS보다 더 간결하고 구체적인 말로 표현되어 나이가 어리거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가치구조의 발달적인 측면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질문지인 가치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 Scale: PVQ)를 개발하였다.

PVQ 문항들은 인물에 대한 짧은 묘사를 제시하고 그 인물과 자신과의 유사성 정도를 평가하게 해서 가치를 측정한다. PVQ 제작 초기에는 SVS에 속하는 56개 문항 중에서 응답하는데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몇 항목들을 제외하고 40문항으로 구성된 PVQ-40(Schwartz et al., 2001)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측정에 실시되는 부담을 고려해서 29문항으로 구성된 PVQ-29이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PVQ-21(Schwartz et al., 2001)이 제작되어 European Social Survey(ESS)와 같은 대규모 사회 조사(Schwartz, 2002)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PVQ는 10세 이상의 연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에 따른 두 가지 버전(version)으로 제작되었다. 제시되는 문항의 내용은 같지만 문항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 제시하였다.

Schwartz와 동료 연구자들(2001)은 이스라엘

아동, 공식적인 교육 경험이 적은 남아프리카의 성인, 우간다의 13~14세 소녀 표집들을 대상으로 PVQ를 성공적으로 타당화 하였다. PVQ로 측정해서 분석한 가치구조와 가치형은 SVS로 측정된 가치구조 및 가치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상위의 4가지 가치들인 자기초월 가치, 자기고양 가치,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보수주의 가치로 구분되어 독립된 2개의 양극 차원 구조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치형에 있어서도 10개의 가치형(value type)들 중에서 7~8개 정도가 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개 정도의 가치형(예컨대 보편주의형 가치와 박애형 가치는 서로 혼합되어 나타났음)은 완전히 분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연령이 어린 아동들에게는 가치구조 상에서 아직 발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Bubeck & Bilsky, 2004). 그리고 Schwartz와 동료 연구자들(2001)도 13세 정도까지는 가치들 간의 관계 구조가 완전히 분화되지 않았음을 제안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PVQ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 Schwartz와 동료 연구자들이 분석한 표집 이외의 다른 문화권의 표집에서도 가치구조가 유사하게 나오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Bubeck & Bilsky, 2004), 특히, SVS와 PVQ 측정의 근거가 되는 Schwartz의 가치이론이 범문화적으로 타당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나라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가치구조의 문화 보편성이 확인될 필요성도 지적되었다(김연신, 최한나, 2009; 신현희, 2011). 또한, 연령과 관련된 발달적 변화가 가치형의 분화에 있어서도 차이를 동반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Bubeck & Bilsky,

2004; Döring, et al., 2010).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VS를 사용하여 가치구조를 확인한 연구들(김연신, 최한나, 2009; 신현희, 2011)은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구조의 발달 양상을 본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가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가치형성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승중, 2006; 김행자, 1993; 박진규, Castroverde, 2006; 최경희, 2004), 세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나 가치관의 변화(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 한덕웅, 이경성, 2003; 한상필, 2003), 가치와 특정 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서영석, 이정립, 차주환, 2006; 신현희, 2011; Schultz, Couveia, Thankha, Schmuck, & Franěk, 2005)와 같은 주제들이 많았으며, 특정이론에 근거하여 가치구조의 발달 자체를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런 연구들이 드물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Bubeck과 Bilsky(2004)의 지적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PVQ와 관련된 연구들이 시작된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와 아동기 후기의 가치에 주목(예: Bilsky, Niemann, Schmitz, & Rose, 2005; Kanfo & Schwartz, 2003a; Kanfo & Schwartz, 2003b) 하게 되었으며, 어린 연령에서의 가치의 구조, 가치의 의미 출현, 정체감 형성에서 가치의 역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의 일치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Döring et al., 2010). 또한, Schwartz의 이론에서 확인된 가치형들이 어린 나이에도 상당히 분화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Bilsky et al., 2005)은 이런 가치구조들이 언제,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게 했으며, 가치구조의

발달적 변화를 보기 위해 좀 더 어린 10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림에 기초한 가치 측정도구(Picture-Based Value Survey for Children: PBVS-C)가 제작되어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는 중이다(Döring, 2008; Döring, 2010; Döring, et al., 2010).

본 연구의 주목적은 Schwartz의 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적 양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가치구조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생(만 11세)과 고등학생(만 15세)을 대상으로 PVQ를 사용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Schwartz의 이론에 근거한 가치 측정 도구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만 20세)을 대상으로는 SVS 단축형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SVS와 PVQ로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가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가치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PVQ를 국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만약,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Schwartz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면 가치구조는 네 개의 상위 가치형이 독립적인 두 개의 양극차원에 속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즉, 가치구조는 ‘자기초월가치-자기고양가치’ 차원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보수주의가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VS 단축형\*을 사용한 결과들은 기존의 결과와 유사한 가치구조를 보이는가? 만약, 두 결과가 가치구조와 가치형의 수에 있어서

유사하다면 가치 측정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단축형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이론에 근거하지만 PVQ와 SVS라는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들을 비교하여 측정도구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치를 보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김연신, 최한나, 2009)에 대한 답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치와 가치구조가 아주 어린 나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생에 걸쳐서 발달하고 분화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Grusec & Kuczynski, 1997). 이런 발달의 전제 조건은 지적능력 및 추론 능력에서의 질적 변화를 포함한다(Fisher, 1980; Fisher & Lamborn, 1989). 또한, 메타 인지(meta-cognition)와 같은 인지능력의 발달과 삶의 경험 축적도 가치와 가치구조의 발달에서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Bubeck & Bilsky, 2004). 이렇게 가치와 가치구조가 추상적인 사고능력과 메타인지의 발달 및 경험의 축적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라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치구조가 분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분화된 가치형의 수는 초등학생(만 11세)보다는 고등학생(만 15세)이,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만 20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넷째,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화 과정에서 여자들의 경우 타인을 보살피고 관계를 중시하는 점 등이 강조되고, 남자들의 경우 사회적인 성취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강조된다. 따라서,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애나 보편주의, 동조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으며,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취, 권력과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각 연령 집단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현재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며, 이 차이는 무엇을 반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조사에는 부산 소재 세 곳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 325명(남: 167명, 여: 158명), 네 곳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443명(남: 218명, 여: 225명), 두 곳의 대학교 재학생 295명(남: 109명, 여: 189명)이 참여하였다.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11세, 고등학생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15세, 대학생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세였다.

### 측정도구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게는 가치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 Scale: PVQ)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대학생들에게는 Schwartz의 가치조사 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 SVS)에 응답하게 하였다.

### Schwartz의 가치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

\* 원래 SVS는 5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인데 여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PVQ에 해당하는 내용 24문항만을 선택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므로 단축형이라는 의미임

**Scale: PVQ)**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삶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Schwartz와 동료들이(2001)이 개발한 PVQ-21(Portrait Value Scale 21)을 번안하고, 기존의 SVS에서 자기초월 가치 영역에 해당되는 몇 가지 가치문항을 PVQ 문항과 같은 형식으로 추가\*하여 만든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서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은 원래의 PVQ-21에 속하는 20문항과 SVS에 포함된 자기초월 가치에 속하는 하위 가치 4문항을 추가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원래의 PVQ-21에서 제외된 한 문항\*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SVS의 자기초월 가치에서 추가된 하위 가치를 나타내는 4문항은 보편주의형 가치에 속하는 ‘자연과의 일체감’, ‘세계 평화’, ‘사회정의’를 나타내는 3문항과 박애형 가치에 속하는 ‘신뢰받는 삶’이라는 1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하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1명의 가상적인 인물에 대해 묘사하는 글이 제시되고, 그 글 속의 인물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지의 정도를 6점 척도(1=A는 나와 아주 많이 비슷하다, 2=A는 나와 많이 비슷하다, 3=A는 나와 조금 비슷하다, 4=A는 나와 아주

표 1. Schwartz의 삶의 가치구조와 가치형

가치차원	가치형(value type)	PVQ 문항
자기초월가치	박애형 가치	충직한 삶, 도움주는 삶, 신뢰받는 삶*
	보편주의형 가치	환경보호, 넓은 마음, 평등 세계평화*, 사회정의*, 자연일체감*
자기고양가치	권력중시형 가치	물질 풍요, 지배력
	성취중시형 가치	성공, 능력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쾌추구형 가치	즐기는 삶, 쾌 추구
	자극추구형 가치	신나는 삶, 다채로운 삶
	자기주도형 가치	창의성, 스스로 선택
보수주의가치	안전중시형 가치	국가의 안전, 소속
	전통중시형 가치	검소한 삶
	동조중시형 가치	예의바른 삶, 순종

주. \*표시는 PVQ-21에 본 연구에서 추가된 항목

\* 추가된 문항들은 자기초월가치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는데 본 연구는 원래는 자기초월가치와 친환경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 원래의 PVQ-21에서 제외된 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Religious belief is important to him. He tries hard to do what his religion requires.

조금 비슷하다, 5=A는 나와 비슷하지 않다, 6=A는 나와 비슷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이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희영이는 부자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희영이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비싼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한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희영이가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의 정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결과 처리 시에는 이 문항들을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서 표현된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김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4개의 가치문항은 10개의 가치형을 포함하며, 보편주의형 가치와 박애형 가치 및 전통중시형 가치를 제외하고는 각 가치형마다 2개의 하위문항이 포함되었다. 보편주의형 가치에는 6개의 하위 문항, 박애형 가치에는 3개의 하위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전통중시형 가치에는 1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가치모사 질문지(PVQ)는 여성용과 남성용 두 가지 버전(version)으로 제작되었는데 인물을 묘사하는 내용은 두 가지 버전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여학생들에게는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희영”, “수민”이와 같은 여성의 이름으로, 남학생들에게는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민수”, “승기”와 같은 남성의 이름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PVQ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8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76이었다.

**Schwartz의 삶의 가치 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 SVS)**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치 측정에는 신현희(2011)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SVS 56개 문항 중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과의 비교를 위해 PVQ 문항 24개에 해당하는 가치 문항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에 서술된 내용들이 “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지침원리”로서 나에게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지의 정도를 9점 척도(-1= 나의 지침과는 전혀 반대이다, 0= 중요하지 않다 7= 가장 중요하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 기회의 평등이 나에게는 --만큼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이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지침원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chwartz의 삶의 가치조사 질문지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5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과 연령을 표시하게 하였다. 연령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가치구조에 대한 결과와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 만 몇 세 몇 개월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절차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조사 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참여자를 선정하고, 조사 날짜와 시간을 할애 받았다. 약속한 날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자가 조사가 예정된 반에 들어가서 응답요령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하는 도중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하게 하였으며, 손을 들면 연구자가 가서 설명을 해 주었다. 질문지 응답 후 칠판에 만 나이 계산법을 적어서 알려주고 나이를 계산해서 적도록 하였다. 질문지를 수거한 후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참가자들에게 초콜릿을 제공하였다.

질문지 응답에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연구자가 들어가서 강의자의 양해 아래에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응답요령을 설명한 다음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 및 가치형을 확인하기 위해 가치묘사 질문지(PVQ)의 24개 문항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유사성 평정치들의 상호상관 행렬을 사용하여 최소공간분석(Smallest Space Analysis, SSA; Borg & Lingoes, 1987; Borg & Shye, 1995; Shye, 1985)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가치구조 및 가치형을 확인하기 위해 가치조사 질문지(SVS)의 24개 문항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중요도 평정치들 간의 상호상관 행렬을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하였다. 최소공간분석은 가치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Schwartz, 1992; Schwartz & Sagiv, 1995; Schwartz et al., 2001)에서 사용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유사한 자료들의 구조분석을 위한 다양한 다차원 척도법들(multidimensional scaling techniques)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차원척도분석(MDS)은 차원으로만 구분이 될 뿐, 차원 내에서의 하위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와는 달리 최소공간분석(SSA)은 다차원 공간상에서 각각의 문항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상대적 거리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차원 내에서 하위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방법에서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들은 기하학적 공간(Euclidean space)상에서 점들로서 표시된다. 두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간에서 문

항들을 나타내는 점들은 서로 가깝게 표시된다(Bubeck & Bilsky, 2004; Levy, 1990). 즉, 최소공간분석에서는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개념적으로 유사할수록 두 문항들은 다차원 공간상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 집단 별로 24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항들 간의 적률상관(Person's  $r$ ) 행렬을 구성하였다. 상관행렬을 입력 자료로 하여 최소공간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2차원 평면에 나오면 그 위에 문항들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 후, 각각 표시된 문항들이 속한 가치형(value type)을 확인하고, 동일한 가치형에 속하는 문항들을 선으로 구분하여 가치형을 표시하였다. 가치형을 구분하는 선들은 하나의 가치형을 구성하는 영역이 다른 가치형의 영역 경계와 겹치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경계를 가지는 영역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직선이나 곡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Lingoes, 1977, 1981). 이때 가치형의 구분을 위해 Schwartz(1992)가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특정 가치형을 구성하는 가치문항들 중 최소 50%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다른 가치형은 50%이하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두 개의 가치형의 문항들이 혼합되어 50%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가치형 문항들이 50%이하 일 경우에는 두 개의 가치형을 하나의 통합된 가치형으로 간주한다. 넷째, 위의 세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가치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해당 가치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2차원 공간상에서 가치형을 구분하는 선을 긋고 가치구조와 가치형을 살펴보았다. 가치구조 및 가치형에 대한 결과와 가치점수에 따른 성별 차이 결과를 초등학생, 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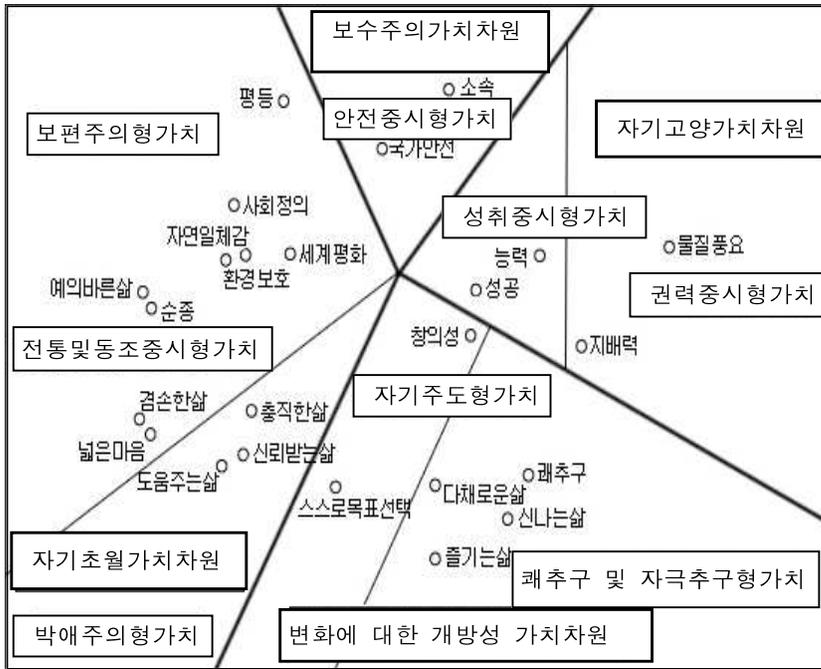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와 가치형

학생, 대학생 순으로 제시하였다.

### 초등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와 가치형

초등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 및 가치형(value type)에 관한 분석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구조는 4개의 상위 위계로 된 자기초월가치(차원), 자기고양가치(차원),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차원), 보수주의가치(차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chwartz(1992, 1994)의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가치형(value type)은 7개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7개의 가치형은 안전중시형 가치, 성취중시형 가치, 권력중시형 가치, 자기주도형 가치, 박애주의형 가치, 보편주의형 가치였으며, 자극추구형 가치와

쾌추구형 가치는 구분되지 않고 함께 혼합되어 하나의 가치형으로 나타났다. 전통중시형 가치 및 동조중시형 가치는 특정한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7개의 가치형 중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형(value type)은 자기주도형 가치와 자극추구형 가치 및 쾌추구형 가치가 혼합된 가치였고, '자기초월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형은 박애주의형 가치와 보편주의형 가치였다. '보수주의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형은 안전중시형 가치였고 '자기고양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형은 성취중시형 가치와 권력중시형 가치였다.

7개의 가치형에 포함되는 각각의 가치 문항들을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자기주도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창의성, 스스로 목표선택 이었다. '자극추구형 가치 및 쾌추구형 가치'는 구분되지 않고 함께 혼합되어 나타났으며, 이 영역들에 포

함된 문항은 다채로운 삶, 신나는 삶, 즐기는 삶, 쾌추구였다. ‘박애주의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충직한 삶, 신뢰받는 삶, 도움을 주는 삶이었다. ‘보편주의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평등, 사회정의, 환경보호, 자연과의 일체감, 세계평화, 예의바른 삶, 순종, 겸손한 삶, 넓은 마음이었다. ‘안전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소속, 국가의 안전이었다. ‘성취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성공, 능력이었다.

Schwartz(1992, 1994)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가치형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차원에 해당하는 3개의 가치형 즉, 자극추구 가치형, 쾌추구 가치형, 자기주도 가치형 중에서 자극추구형 가치와 쾌추구형 가치는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가치형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주의 가치차원에 해당하는 3개의 가치형 즉, 전통중시형 가치, 동조중시형 가치, 안전중시형 가치 중에서 안전중시형 가치만 하나의 구분되는 영역으로 나타날 뿐 동조중시형 가치와 전통중시형 가치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동조중시형 가치와 전통중시형 가치는 보편주의형 가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wartz(1992, 1994)의 삶의 가치형에서 동조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순종’과 ‘예의바른 삶’, 전통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겸손한 삶’은 본 연구에서는 보편주의형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와 가치형

고등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 및 가치형(value type)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을 보면, 고등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4개의 상위 위계로 된 자

기초월가치, 자기고양가치,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그리고 보수주의가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Schwartz(1992, 1994)의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가치형(value type)은 8개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8개의 가치형들은 안전중시형 가치, 성취중시형 가치, 권력중시형 가치, 자기주도형 가치, 박애주의형 가치, 보편주의형 가치, 전통 및 동조중시형 가치, 자극추구형 및 쾌추구형 가치였다. 전통 및 동조중시형 가치는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하나의 가치형으로 나타났다. 쾌추구 및 자극추구형 가치도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하나의 가치형으로 나타났다.

8개의 가치형 중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 차원에 포함된 문항은 창의성, 스스로 목표 선택이었다. ‘자극추구형 가치 및 쾌추구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다채로운 삶, 신나는 삶, 즐기는 삶, 쾌추구였다. ‘박애주의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신뢰받는 삶, 도움을 주는 삶이었다. ‘보편주의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세계평화, 사회정의, 넓은 마음, 환경보호, 자연과의 일체감, 충직한 삶이었다. ‘전통 및 동조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예의바른 삶, 순종, 겸손한 삶, 평등이었다. ‘안전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소속, 국가의 안전이었다. ‘성취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성공, 능력이었다. Schwartz(1992, 1994)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가치형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가치 차원에 해당하는 3개의 가치형 즉, 자극추구 가치형, 쾌추구가치형, 자기주도 가치형 중에서 자극추구형 가치와 쾌추구형 가치는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가치형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중시형 가치와 동조중시형 가치도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가치형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애주의 가치형에 속해야 하는 1개의 문항(충직한 삶)이 박애주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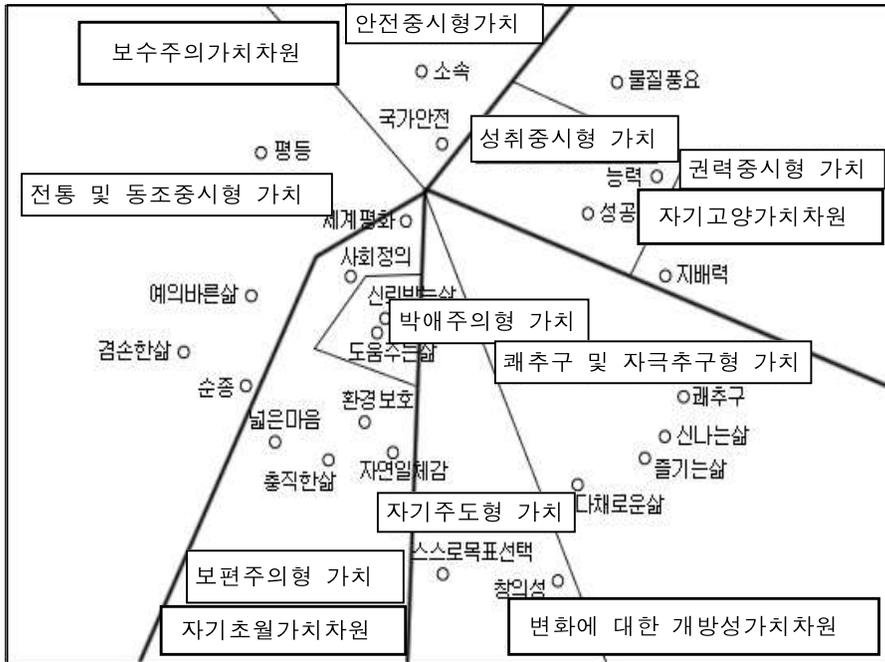


그림 3. 고등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와 가치형

형에 속하지 않고 바로 이웃하는 보편주의 가치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편주의 가치형에 속해야 하는 1개의 문항(평등)이 전통 및 안전중시 가치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와 가치형

대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 및 가치형(value type)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를 보면, 대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는 4개의 상위 위계로 된 자기초월가치, 자기고양가치,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 그리고 보수주의가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Schwartz(1992, 1994)의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가치형(value type)은 9개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9개의 가치형들은 동조중시형 가치, 안전중시형 가

치, 박애주의형 가치, 보편주의형 가치, 자기주도형 가치, 자극추구형 가치, 쾌추구형 가치, 성취중시형 가치, 권력중시형 가치였다. 전통중시형 가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9개의 가치형 중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형(value type)은 자기주도형 가치, 자극추구형 가치, 쾌추구형 가치였고, '자기초월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형은 박애주의형 가치와 보편주의형 가치였다. '보수주의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형은 동조중시형 가치와 안전중시형 가치이고, '자기고양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형은 성취중시형 가치와 권력중시형 가치였다. 9개의 가치형에 포함되는 각각의 가치 문항들을 살펴보면(그림 4참조, 자기주도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창의성, 스스로 목표선택이었다. '자극추구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다채로운 삶, 신나는 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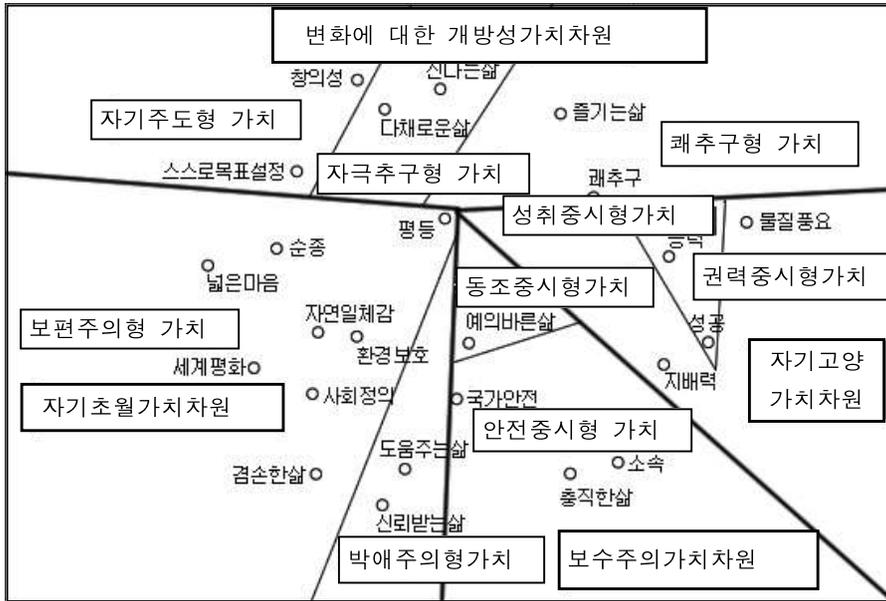


그림 4. 대학생들의 삶의 가치구조와 가치형

었고, ‘쾌추구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즐기는 삶, 쾌추구였다. ‘성취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능력, 성공, ‘권력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물질적인 풍요, 지배력이었다. ‘동조중시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예의바른 삶이었고, ‘안전중시형 가치’에 포함되는 문항은 소속, 국가의 안전, 충직한 삶이었다. ‘박애주의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신뢰받는 삶, 도움을 주는 삶이었다. ‘보편주의형 가치’에 포함된 문항은 평등, 환경보호, 자연과의 일체감, 세계평화, 사회정의, 넓은 마음, 겸손한 삶, 순종이었다.

Schwartz(1992, 1994)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가치형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박애주의형 가치의 문항인 ‘충직한 삶’이 안전중시형 가치에 포함되었고, 동조중시형 가치의 문항인 ‘순종’과 전통중시형 가치의 문항인 ‘겸손한 삶’이 보편주의형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차이가 있었다.

####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가치형에 따른 성별차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은 PVQ를 사용하여 가치를 측정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표 2에 묶어서 제시하였으며, 대학생은 SVS를 사용하여 가치를 측정하였으므로 표 3에 따로 제시하였다. 표 2에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치형과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들의 가치형별 평균값은 쾌추구( $M=4.88$ ), 성취중시( $M=4.53$ ), 자극추구( $M=4.51$ ), 안전중시( $M=4.41$ ), 보편주의( $M=4.30$ ), 자기주도( $M=4.12$ ), 동조( $M=4.08$ ), 박애( $M=4.04$ ), 전통( $M=3.92$ ), 권력중시( $M=3.62$ )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쾌와 자극을 추구하고, 성취를 이루며, 안전을 누리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전통을 추구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

표 2.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치형과 성별에 따른 평균(표준편차)

차원	가치형	초등학생(만11세)			t	고등학생(만 15세)			t
		전체 (n=325)	남 (n=167)	여 (n=158)		전체 (n=443)	남 (n=218)	여 (n=225)	
자	박애	4.04 (.96)	4.07 (.99)	4.01 (.93)	.57	4.01 (.91)	3.91 (.88)	4.12 (.92)	-2.48*
기	초	4.30 (.82)	4.33 (.84)	4.27 (.80)	.68	4.30 (.75)	4.21 (.77)	4.38 (.71)	-2.35*
월	성취중시	4.53 (1.04)	4.41 (1.01)	4.65 (1.07)	-2.02*	4.71 (.95)	4.68 (.99)	4.74 (.92)	-.72
자	기	3.62 (1.18)	3.56 (1.13)	3.68 (1.23)	-.87	3.83 (1.02)	3.85 (1.02)	3.80 (1.02)	.48
고	양	4.88 (.99)	4.95 (.99)	4.80 (.99)	1.30	4.98 (.88)	4.91 (.89)	5.02 (.87)	-1.28
변	화	4.51 (1.21)	4.57 (1.20)	4.45 (1.22)	.89	4.47 (1.11)	4.38 (1.14)	4.54 (1.08)	-1.54
개	방	4.12 (1.00)	4.11 (1.05)	4.12 (.94)	-.09	4.23 (.90)	4.23 (.90)	4.24 (.90)	-.07
자	기	4.41 (1.14)	4.51 (1.11)	4.29 (1.16)	1.78	4.44 (.99)	4.30 (1.00)	4.58 (.97)	-2.96**
보	수	3.92 (1.26)	3.90 (1.32)	3.94 (1.20)	-.23	4.17 (1.18)	4.25 (1.22)	4.09 (1.14)	1.46
주	의	4.08 (.99)	4.01 (1.01)	4.15 (.92)	-1.21	4.19 (.99)	4.20 (.95)	4.20 (1.02)	.11

\*  $p < .05$ , \*\*  $p < .01$

주. 가치형은 6점 척도 상에서 측정, 수치가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의미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형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10개의 가치형 중 성취중시형 가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개의 가치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성취중시형 가치의 경우, 여학생( $M=4.65$ )이 남학생( $M=4.41$ )보다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t(323)=-2.02, p < .05$ ).

고등학생들의 가치형별 평균값은 쾌추구( $M=4.98$ ), 성취중시( $M=4.71$ ), 자극추구( $M=4.47$ ), 안전중시( $M=4.44$ ), 보편주의( $M=4.30$ ), 자기주도( $M=4.23$ ), 동조( $M=4.19$ ), 전통( $M=4.17$ ), 박애( $M=4.01$ ), 권력중시( $M=3.83$ ) 순으로 나타났다. 전

표 3. 대학생의 가치형과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차원	가치형	전체 (n=295)	남 (n=109)	여 (n=186)	t
자	박애	3.23	3.21	3.24	-.17
기		(1.32)	(1.46)	(1.24)	
초	보편주의	3.82	3.90	3.77	.95
월		(1.14)	(1.21)	(1.08)	
자	성취중시	4.64	4.49	4.73	-1.46
기		(1.41)	(1.57)	(1.29)	
고	권력중시	3.12	2.89	3.25	-2.00*
양		(1.52)	(1.66)	(1.42)	
번	쾌추구	4.66	4.67	4.66	.06
화		(1.31)	(1.44)	(1.24)	
개	자극추구	4.00	3.83	4.10	-1.33
방		(1.66)	(1.83)	(1.55)	
	자기주도	4.56	4.57	4.55	.11
		(1.39)	(1.48)	(1.33)	
보	안전중시	3.64	3.56	3.69	-.78
수		(1.42)	(1.41)	(1.42)	
주	전통중시	4.45	4.58	4.37	.97
의		(1.78)	(1.87)	(1.72)	
	동조중시	4.87	4.93	4.83	-.19
		(1.22)	(1.20)	(1.24)	

\* $p < .05$

주. 가치형은 9점 척도(-1~7)상에서 측정, 수치가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의미

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쾌와 자극을 추구하고, 성취하고, 안전을 누리는 것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박애나 권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형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10개의 가치형 중 박애형, 보편주의형, 안전중시형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박애형 가치의 경우 여학생 ( $M=4.12$ )이 남학생( $M=3.91$ )보다 주변 사람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박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41)=-2.48, p < .05$ ). 둘째, 보편주의형 가치의 경우, 여학생( $M=4.38$ )이 남학생( $M=4.21$ )보다 이해, 감사, 인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41)=-2.35, p < .05$ ). 셋째, 안전중시형 가치의 경우 여학생이( $M=4.58$ ) 남학생( $M=4.30$ )보다 사회와 관계의 안전과 조화 등을 목표로 하는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41)=-2.96, p < .01$ ).

표 3에는 대학생의 가치형과 성별에 따른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들의 가치형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동조중시( $M=4.87$ ) 쾌추구( $M=4.66$ ), 성취중시( $M=4.64$ ), 자기주도( $M=4.56$ ), 전통중시( $M=4.45$ ), 자극추구( $M=4.00$ ), 보편주의( $M=3.82$ ), 안전중시( $M=3.64$ ), 박애주의( $M=3.23$ ), 권력중시( $M=3.12$ )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은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절제하고, 사회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조, 자신의 쾌나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성취,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기주도적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보호받

고 소속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안전을 누리고, 박애를 베풀고, 권력을 누리는 것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형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10개의 가치형 중 권력중시 가치형을 제외하고는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권력중시 가치형의 경우, 여학생( $M=3.25$ )이 남학생( $M=2.89$ )보다 물질적 풍요와 타인과 자원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t(293)=-2.00, p<.05$ ).

## 논 의

본 연구는 Schwartz의 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치구조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치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기에 초등학생(만11세)과 고등학생(만 15세)을 대상으로 PVQ를 사용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SVS 단축형을 사용하여 국내외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전 연구의 결과(신현희, 2011; Schwartz, 1992, 1994)를 반복 검증해서 단축형의 사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PVQ와 SVS라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가치구조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가치의 중요도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함께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온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가능한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PVQ를 사용하여 측정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치구조와 가치형은 SVS를 사용한 기

존의 연구 결과들(Schwartz, 1992, 1994)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PVQ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해서 단축형으로 측정된 가치구조와 가치형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신현희, 2011)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에게서 가치구조는 4개의 상위 위계로 된 자기초월가치(차원), 자기고양가치(차원), 변화에 대한 개방성가치(차원), 보수주의가치(차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가치형들도 7개~9개로 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PVQ와 SVS 척도의 타당성이 국내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SVS 단축형의 사용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인간의 삶의 가치에는 문화보편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가치발달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분화된 가치형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경우 7개, 고등학생의 경우 8개, 대학생의 경우는 9개로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라 분화된 가치형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분화된 가치형의 수에 있어서 상이한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통중시형 가치, 동조중시형 가치, 쾌추구형 가치, 자극추구형 가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통중시형 및 동조중시형 가치는 분화된 가치형으로 존재하지 않고 보편주의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쾌추구형 가치와 자극추구형 가치가 서로 혼합되어 하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쾌추구 및 자극추구 가치가 분화되지 않은 것은 초등학생과 동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전통중시형 및 동조중시형 가치는 서로 혼합되어 하나의 가치형으로 존재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쾌추구형 가치와 자극추구 가치가 각각 분화된 가치형으로 존재했으며, 동조중시형 가치도 분

화되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의 경우(만 11세) 인지 발달 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추론 능력이나 메타인지가 덜 발달했으며,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Bubeck & Bilsky, 2004). 초등학교생들은 전통과 동조와 같은 가치 항목들을 타인들의 복지 향상과 자연보호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주의 가치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자신을 위해 꽤나 육감적 욕구 충족을 목표로 삼는 쾌추구형 가치와 삶에 있어서 신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목표로 삼는 자극추구형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도 자극추구와 쾌추구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생들에게서는 이런 가치형들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화된 가치형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적 능력과 추론 능력에서의 질적 변화(예컨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전환)와 자기 사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사고한 결과로 생겨나는 행동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인 메타 인지(meta-cognition)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 속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의 축적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생과 고등

학생의 가치형의 분화에 관한 결과는 서구 문화권에서 발견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구조를 본 극소수의 연구들 중에 PVQ-29\*을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한 연구(Bubeck & Bilsky, 2004)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만 11세\* 학생(초등학교 6학년)들에게서는 가치형이 7개로 분화되어 나타났으나 동일한 연령대에 해당하는 독일의 10~12세 학생들의 경우 가치형의 수가 9개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9개의 가치형들은 안전중시형 가치, 성취중시형 가치, 권력중시형 가치, 자기주도형 가치, 자극추구형 가치, 쾌추구형 가치, 박애주의형 가치, 보편주의형 가치, 전통중시형 가치 및 동조중시형 가치였다. 그리고, 전통중시형 가치와 동조중시형 가치가 분화되지 않고 서로 섞여서 하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중시형 가치와 동조중시형 가치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같은 연령의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달리 자극추구형 가치와 쾌추구형 가치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만 15세 학생(고등학교 1학년)들에게서는 가치형이 8개로 분화되어 나타났으나 동일한 연령대의 독일의 15세~17세 학생들의 경우 가치형의 수가 10개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치형들이 더 이른 나이에 분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동일한 연령의

\* 본 연구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PVQ-29를 사용하고자 PVQ 공동 제작자인 Bilsky에게 척도를 요청한 결과 Bilsky는 PVQ-29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추세이며 PVQ-21을 사용하기를 권고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PVQ는 최소 10세 이상(우리나라 나이로는 만 11세) 되어야 응답이 가능하다는 Bilsky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더 분화된 가치구조를 갖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같은 서구 사회는 우리나라에 비해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이 더 강조되고 개인의 정확한 의사 표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근면하지만 노동과 휴식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꼼꼼하고 이치를 밝히며, 철저하게 규범을 준수하려는 독일의 국민성과 지식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독일의 교육제도(박성숙, 2010) 등이 좀 더 일찍 가치가 분화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분화된 하위 가치형의 중요도 측면을 살펴보면, 상이한 세 연령 집단에 걸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순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쾌추구, 성취중시, 자극추구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박애, 전통, 권력과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쾌추구와 성취중시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추구와 성취중시, 자극추구와 같은 것들을 다른 가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국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한국인의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였으며(한상필, 2003), 1979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동안 가장 증가한 가치관은 자신과 가족중심의 개인주의와 자기주장성의 증가였고(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 대학생과 성인들은 과거에 비해 이상추구를 위한 자기통제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다양성의 추구하고 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선호인 쾌락

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결과(한덕웅, 이경성, 2003)들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는 한국사회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쾌락주의를 선호하고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순위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안전중시형 가치가 자기주도형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학생들에게서는 자기주도형 가치가 더 중요하고, 안전중시형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연령에 따른 발달 과업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에 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기 보다는 부모와 사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며, 현실에서도 부모와 사회의 보호와 감독이 보다 허용된다. 반면에, 대학생들에게는 부모와 사회의 보호보다는 자신이 주도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발달 과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자기주도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Pohjanheimo, 1997; Puohiniemi, 2002)와도 일치한다.

넷째, 본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남녀의 사회화 과정 등의 차이로 인해 가치형의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소수의 몇몇 가치형들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차이가 난 가치형들도 연령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기 때문에 일관된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하위 가치형들의 중요도에 있어서 성차가

거의 없었다는 결과들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과거에 비해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변화하였으며(한상필, 2003), 지난 30년간 한국인에게서 가장 증가한 가치관은 남녀 평등의식이라는 결과(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와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소수의 가치형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들은 요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각종 선거나 경시대회 및 성적 등에서 남학생들을 압도하는 현상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유진규, 2007). 과거에 비해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같은 교육기회의 증가,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존여비 사상의 감소, 평등의식의 증가와 같은 것들은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서 성취동기가 더 높게 만든 원인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대학생 집단에 비해 성차가 나는 가치형들이 더 많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박애, 보편주의, 안전중시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치 조사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박애, 보편주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Schwartz & Rubel,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권력추구형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대학생 모두 여학생들이 자기고양가치 차원에 속하는 가치(예컨대, 성취추구 가치형, 권력추구 가치형) 항목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 결과들은 과거에 비해 남녀 평등의식이 증가하고, 여성들도 사회활동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중시하고 풍요함을 누리려는 여성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소수의 하위 가치형들에서 연령 집단에 따라 성별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들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추수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표집이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의 거주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만 11세, 만 15세, 만 20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특히, 본 연구처럼 문화라는 기준이 포함되는 연구 주제들은 연구대상자들이 문화권에서 대표성을 가질 때 연구의 외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이종한,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한국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가치구조와 가치형에 관한 내용들은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 사회계층, 지역별로 계속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추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포함된다면 인간의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의 가치발달 양상과 가치의 중요도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세 집단 모두에게서 전통중시형 가치가 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측정 방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문화적인 타당성 때문에 배제된 전통중시 가치를 측정하는 나머지 1 문항을 추수연구에서는 포함한다면 본 연구와는 달리 전통중시 가치형이 분화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PVQ를,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SVS를 사용하여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다면 PVQ로 나온 결과와 SVS로 나온 결과를 동등하게 놓고 본

다는 것은 의문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PVQ로 측정된 가치구조와 SVS로 측정된 가치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는 기존의 결과들,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주로 SVS를 사용하는 경향, SVS를 사용했지만 PVQ와 동일한 가치영역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결과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두 가지 형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도구에 따른 결과 차이를 비교하여 타당한 가치 측정도구를 위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연신, 최한나, 2009).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PVQ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동일한 연령의 우리나라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더 분화된 가치구조를 갖는 결과로 볼 때, 문화적인 차이와 가치구조의 분화 정도와의 관련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미래 연구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국내에서도 PVQ의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더 필요하다.

끝으로, 가치는 바람직한 사회 발달의 핵심 측면들로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이나 학교와 연계된 가치교육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Döring, 2010; Narváez, 2006) 특히, 가치는 구체적인 태도 및 행동의 근원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Olson et al., 1996; Stern, 2000; Stern & Dietz, 1994), 환경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가치에 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Brown & Cameron, 2000; Mayer & Frantz, 2004). 가치와 관련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으로 가치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타당화 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가치가 어린 시절의 교육이나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가치가 형성 중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가치(예컨대 자기초월가치)를 강조하고 교육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건전한 사회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승중 (2006). 가치관 정립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 상담과 지도, 41, 373-387.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 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 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 김행자 (1993). 부 부재와 청소년기의 가치관 발달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학술지, 221-237.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박성숙 (2010). 독일인의 교육 이야기. 21세기 북스
- 박진규, Castroverde, S. P. (2006). 필리핀 청소년의 가치관 발달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 연구, 13(6), 362-385.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 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협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신현희 (2011). 자기초월가치와 환경보존행동 및 친환경행동의도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진규 (2007). *알파 걸-그들이 빛나는 이유*. SBS스페셜
- 이종한 (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6(2), 76-93.
- 최경희 (2004). 문학 경험이 아동의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학교육학*, 14, 79-119.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한상필 (2003). 광고를 통해 본 한국문화의 변화: 1969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광고 내용분석, *광고 연구*, 58, 135-162.
- Bilsky, W., Niemann, F., Schmitz, J., & Rose, I. (2005). Value structure at an early age: Cross-cultural replications. In W. & D. Elizur(Eds.), *Facet theory: Design, analysis, and applications.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Facet Theory Conference in Rome*, 10-13 July 2005(pp. 241-248). Prague, Czech Republic: Agentura Action M.
- Borg, I., & Lingoes, J. (1987). *Multidimensional similarity structure analysis*. New York Springer.
- Borg, I., & Shye, S. (1995). *Facet theory: Form and context*. Newbury Park, CA: Sage
- Brown, P. E., & Cameron, L.D. (2000). What can be done to reduce overconsumption? *Ecological Economics*, 32, 27-41.
- Bubeck, M., & Bilsky, W. (2004). Value structure at an early age.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3, 31-41.
- De Groot, J. I. M., & Steg, L. (2008). Value orientations to explain beliefs related to environmental significant behavior: How to measure egoistic, altruistic, and biospheric value orientations. *Environment and Behavior*, 40, 330-354.
- Döring, A. K. (2008). *Assessment of children's values: The development of a picture-based instrument* (Dissertation thesis, University of Münster, Münster, Germany).
- Döring, A. K. (2010). Assessment children's valu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28, 564-577.
- Döring, A. K., Blauensteiner, A., Aryus, K. Drögekamp, & Bilsky, W. (2010). Assessing values at an early age: The Picture-Based Value Survey for Children(PBVS-C).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 439-448.
- Fisher, K. W. (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Fisher, K. W., & Lamborn, S. D. (1989). Mechanism of variation in developmental levels: Cognitive and emotion transitions

- during adolescence. In A. K. Ribaupierre(Ed.), *Transition mechanisms in child development: The longitudinal perspective*(pp. 33-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usec, J. E., & Kuczynski, L. (Eds.). (1997).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New York: Wiley.
-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ey Hills, CA: Sage.
- Kanfo, A., & Schwartz, S. H. (2003a). Parenting and adolescents' accuracy in perceiving parental values. *Child Development, 74*, 595-611.
- Kanfo, A., & Schwartz, S. H. (2003b). Identity formation and parent-child value congruence in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39-458.
- K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 Parsons & E. Shil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pp.388-433).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 Levy, S. (1990). Values and deeds. *Applied Psychology, 39*, 379-400.
- Lingoes, J. C. (1977). *Geometric representations of relational data*. Ann Arbor, MI: Mathesis.
- Lingoes, J. C. (1981). Testing regional hypotheses in multidimensional scaling. In I. Borg (Ed.), *Multidimensional data representations: When and why* (pp. 280-310). Ann Arbor, MI: Mathesis.
- Mayer, F. S., & Frantz, C. M. (2004). The connectedness to nature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s' feeling in community with natur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 503 - 515.
- Narváez, D. (2006).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IN M. Killen & J. G. Smetana(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703-732). Mahwah, NJ: Erlbaum.
- Olson, J. M., Roese, N. J., & Zanna, M. P. (1996). Expectancies.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211-238). New York: Guilford.
- Pohjanheimo, E. (1997). Arvojen muutos, työ ja sosiaalinen tausta. Tutkimus työikäisistä pyhtääläisistä 1982-1993. [Value change, work, and social background. A study of working-age people at Pyhtää 1982-1993]. *Research Reports, 1*, 1997,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University of Helsinki.
- Puohiniemi, M. (2002). *Arvot, asenteet ja ajankuva* [Values, attitudes, and zeitgeist]. Vantta: Limor.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chultz, P. W., Couveia, V. V., Thankha, G., Schmuck, R., & Franěk, M. (2005). Val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environmental concern and conservation Behavior.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 457-475.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 content and structures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s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chwartz, S. H. (2002). Human Values, <http://essedunet.nsd.uib.no/cms/topics/1>
- Schwartz, S. H. (2005a). Basic human values: their content and structure across countries. In A. Tamayo, & J. B. Porto (Eds.), *Valores e comportamento nas organizações [Valu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pp. 21-55). Petrópolis, Brazil: Vozes.
- Schwartz, S. H. (2005b). Robustness and fruitfulness of a theory of universals in individual human values. In A. Tamayo, & J. B. Porto (Eds.), *Valores e comportamento nas organizações [Valu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pp. 56-95). Petrópolis, Brazil: Vozes.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chwartz, S. H., & Boehnke, K. (2004). Evaluating the structure of human values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 230-255
- Schwartz, S. H., Melech, G., Lehmann, A., Burgess, S., Harris, M., & Owens, V. (2001).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519-542.
- Schwartz, S. H., Rubel, T. (2005).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1010-1028.
- Schwartz, S., & Sagiv, L. (1995). Identifying culture-specific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99-116.
- Shye, S. (1985). Smallest Space Analysis. In T. Husén & T. N. Postlethwait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pp. 4602-4608). Oxford: Pergamon.
- Stern, P. C. (2000). Toward a coherent theory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56*, 407-424.
- Stern, P. C., & Dietz, T. (1994). The value basis of environmental concern. *Journal of Social Issues, 50*, 65-84.

---

1차 원고 접수: 2012.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05. 18

최종 게재 결정: 2012. 05. 21

## Development of Value Structure with Age

Ji young Suh      Young 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on adults subjects has provided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Schwartz's theory(1992) on the structure of values. However, information about the application of this theory to children and adolescents is very scarce. We employed Portrait Value Questionnaire(PVQ)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Schwartz's value theory to children and adolescent using two sampl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N=325) and high school students(N=443). Schwartz's Value Survey(SVS) was employed in order to test Schwartz's value theory in college students(N=295). The results broadly confirmed validity of Schwartz's value theory. Specifically, construction of human values was found to consist of four higher order value types: self-transcendence value, self-enhancement value, openness to change value, and conservation value. The number of value types differentiated by subjects increased with age. The number of value types was 7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8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9 for college studen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importance of value types on the basis of gender, except in the case of a few value types. The meaning of the trend in the number of value types with age; the value importance of children, adolescents, adult; the necessity of a valid measurement tool for value; and the necessity of value intervention are discussed.

*Keywords: portrait value questionnaire(PVQ), schwartz value survey(SVS), schwartz's value theory, value, value structure*